

가운데 발산천(二)은
그런데 있어만 있으면
마지막 발전할 수 있을
모양을 얻는다.

신세대 여성들은 결혼한
엔 부모에, 결혼후엔 남편
게 순종해야 한다는 三從
道에도 반기를 들고 있다

무남독녀도 자란 韓雪
씨(23)의 하와이 대학원
생화는 부부무부며 실
적으로 독립하고 싶어
이 선물이면서도 따로